

프로야구 '클린 베이스볼' 취지 무색

NC 이태양 승부조작 등 인해 신뢰도 바닥 칠듯

원정도박 파문에 이어 성추문과 승부조작까지 프로야구를 둘러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올해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아쉽게 추진한 '클린 베이스볼'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KBO는 지난 5월31일 잠실야구장에서 법무부와 함께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과 클린 베이스볼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우리 사회에 규칙을 지키고 상대를 배려하는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과 법질서를 존중하는 준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하는 취지였다.

올 시즌을 앞두고 삼성 라이온즈 출신 전현직 투수 4명이 연루된 해외 원정도박 파문이 야구계를 한 차례 휩쓸었다.

kt 위즈의 장성우는 자신의 SNS에서 참아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내뱉었다가 장기간 출장 정지를 받았다 여기에 선수들의 음주운전도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되자 KBO는 국내 최대 인기 프로스포츠답게 자정 노력과 법과 질서를 지키는 준법정신을 확립하고자 클린 베이스볼 캠페인을 추진했지만 무용지물이다.

KBO의 노력을 비롯가라도 하듯 이달 초 MVP 출신 강타자 김상현은 유례 없는 공연 음란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정도박에 가담했던 삼성 불펜 투수 안지민은 최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여기에 NC의 영건 이태일이 승부 조작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12년 승부 조작 파문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던 야구계는 이후 자정 노력을 했지만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순간이다.

연이은 사건사고도 모자라 불과 4년 만에 선수들의 도덕적 해이의 끝을 보여주는 승부조작까지 터지면서 프로야구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바닥을 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일부 선수들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기에는 최근 벌어진 사건의 심각성이 너무 크다"며 "단순히 '클린 베이스볼'을 외치는 수준의 캠페인으로는 추락한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8)의 승부조작 파문과 관련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가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사과했다.

선수협은 21일 "이태양의 승부조작 행위와 관련해 선수관리와 교육에 책임있는 단체로서 프로야구 팬과 야구 관계자 여러분께 사죄를 드린다"며 "승부조작 행위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선수협은 "승부조작은 그라운드와 혼련



KBO는 지난 5월31일 잠실야구장에서 법무부와 함께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과 클린 베이스볼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에서 묵묵히 땀을 흘리는 선수들을 배신하는 행위다. 동료 선수와 선수협 최대의 적이며 내부의 암세포"라며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처리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책임있는 선수단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관련 선수에 대한 선수협 자체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선수협은 "아직 프로의식을 가지지 못한 선수들이 있고 직업윤리와 책임의식 없이

물질적 욕구만 추구하고 야구팬과 야구의 중요성을 외면해 이런 사태가 재발했다고 보고있다"며 "선수들이 프로의식을 제대로 갖추고 검은 유혹의 온상인 스폰서 문화의 현실을 선수들에게 각인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선수협은 자체 신고센터를 운영해 승부조작과 관련된 내용이 접수되는대로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수사기관에 제보해 진상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민근기자

노민우, 과거 소속사 SM 상대 손해 청구서 패소

SM엔터테인먼트(SM)에서 '트랙스'로 활동했던 가수 겸 배우 노민우(30)(사진)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노씨가 "연예활동을 방해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 소속사 SM을 상대로 낸 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노씨와 SM 사이에 체결한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SM이 매니지먼트를 소홀히 했다거나, 연예활동을 계속적으로 방해해 왔다는 노씨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노씨 측은 지난해 11월 "SM은 노씨가 트랙스에서 탈퇴할 때까지 기획이나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트랙스를 탈퇴하고 난 이후에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음악이나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담당 PD나 제작사 대표에게 인력을 행사하는 등 연예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 SM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민근 기자

최양락 MBC '재미있는 라디오' 하차 의혹 제기

외압 논란이 불거진 개그맨 최양락(54)(사진)의 MBC 표준FM '재미있는 라디오' 하차와 관련 MBC가 "근거 없는 왜곡이자 악의적 폄훼"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가 폐지되고 14년 동안 프로그램 램을 이끈 최양락이 하차하면서 전 대통령 상대모사 등을 선보인 코너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외압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MBC는 "프로그램 폐지와 DJ 교체는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담임PD 교체, 포맷 개발 등 장기간의 노력과 시도에도 최근 3년 동안 동시기에 주유 4개 채널 가운데 최하위 그룹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력 없는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것은 일상적인 개편의 일환"이라며 "그 대안을 마련한 것을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상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민근기자

삼진 2개 · 무안타 · 무실점... 오승환 시즌 3호 세이브

2경기만에 다시 무실점 피칭... 평균자책점 1.71로 내려가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시즌 3호 세이브를 수확했다.

오승환은 21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16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팀이 4-2로 앞선 9회초 마운드에 올라 삼진 2개를 곁들이며 1이닝을 무안타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이로써 오승환은 지난 4일 밀워키 브루어스전 이후 17일만에 세이브를 챙겼다. 시즌 3호 세이브.

지난 7일 피츠버그 파이러츠전부터 11일 밀워키전까지 4경기 연속 무실점 투구를 선보였다.

그러나 지난 16일에 마이애미 말린스전에서 1이닝 1실점을 기록했던 오승환은 2경기만에 다시 무실점 피칭을 펼쳤

다. 오승환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1.75에서 1.71로 내려갔다.

이날 3명의 타자에게 15개의 공을 던진 오승환의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95마일(약 153km)까지 나왔다.

오승환은 첫 상대인 윌 마이애스를 2루수 앞 땅볼로 처리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안개 르비스 솔라르테와 7구까지 가는 대결을 펼친 오승환은 체인지업으로 헛스윙을 이끌어내 삼진을 슈어냈다.

오승환은 맬빈 업튼 주니어에게 5구째 슬라이더로 헛손질을 유도, 삼진을 추가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2연승을 달린 세인트루이스는 49승째(44패)를 수확했다.

/김민근기자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오승환(34·사진 오른쪽)이 21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16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에서 팀이 4-2로 앞선 9회초 등판해 10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뒤 포수 아디에르 몰리나와 함께 기뻐하고 있다.

유상무 "강간미수 혐의 납득하기 어렵다"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개그맨 유상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1일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허전히 그의 무죄를 추정하고 있다"며 "너무 면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진실은 명명백백 밝혀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혐의 없음을 입증할 여러 정황과 추가 증거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확보하고 있지만 상대 여성에 대한 예의와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2차 논란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속 연예인이 악의적 피해 당사자가 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며 그 어떤 불순한 목적과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청했다.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상무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22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공동발견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